

나를 위로 해 주는 것들

최혜빈

듣기만 해도 행복해지는 말이나 단어가 있다. 강아지.. 고양이.. 등등 떠올리기만 해도 웃음이 사르르 베어 나오는 단어. 연인이나 혹은 가족, 친구에게 듣는 소중한 말들만 해도 힘들었던 일을 떨쳐낼 수 있을만큼 큰 위로가 된다. 사람마다 각자의 힘든 순간이 다르듯 자기 자신을 위로하는 것도 다르다고 생각한다. 오늘은 내가 위로받는 것에 대해 말해 주고 싶다.

내가 보던 드라마 한 장면 중 이런 말이 나온 적이 있다.' 멋있다는 경우 멋지지 않은 면을 보면 환상이 깨질 지도 모른다. 하지만 귀엽다는 경우는 뭘 해도 귀엽다. 귀엽다 앞에서는 모두 복종! 두말없이 행복! '이런 말이 있다.

나는 귀여운 것을 무척이나 좋아하는데 하루종일 입에 달고 사는 말을 누군가 숫자로 세준다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귀여워 일 것이다. 사람이 잘생겨 보이는 것보다 위험한 게 귀여워 보이는 거라는데 정말 백프로 맞는 말이다. 귀여우면 뭘 하든 귀여워 보인다.밥을 먹어도.. 친구들과 얘기를 해도.. 귀여워 보인다. 나는 귀여운 걸 보면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는데, 그러면 그 전 기분이 어쨌든간 기분이 좋아진다. 왜 아이돌이나 예능을 나오는 연예인들이 주구장창 애교를 하겠는가. 그거만큼 사람 기분이 좋아지는 마법이 없다.

나는 주로 사람보다는 동물에게서 귀여움을 많이 느끼는데 그중 강아지와 고양이를 정말 좋아한다. 사진만 봐도 그냥 사르르 웃음이 난다. 그래서 나는 주로 기분이 안 좋을 때는 동물 영상이나 사진을

자주 본다. 동물이 나에게 일으키는 파급력은 굉장히 크다. 기분이 좋지 않거나, 시험을 망쳤을 경우 동물들이 나오는 영상만 봐도 기분이 좋아진다. 그리고 학교 가는 길에 산책하는 강아지나 지나가는 고양이만 봐도 그 날 하루 학교생활은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 왜 사람들은 굳이 반려동물을 기르려할까 그만큼 반려동물과 함께함으로써 동물들이 나에게 주는 위로와 행복으로 인해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 아닐까

무수히 적힌 글자들을 하염없이 보다보면 다른 생각이 들지 않고 오로지 그 글에만 집중하게 되는 순간이 있다. 그 때만큼은 내가 무슨 감정을 느끼고 있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를만큼 읽는 글들이 나를 그 작지만 넓은 세상 안으로 데리고 간다. 결국 그 작지만 넓은 세상의 주인공의 감정 혹은 그 주변 인물들의 대사나 행동은 손쉽게 나를 울리고 웃음 짓게 한다.

정말 말도 할 수 없이 길고 끝이 보이지 않는 공허함이 찾아 올 때가 종종 있다. 그럴 때면 쉽게 우울감에 빠지기 쉬운데 글을 읽다 보면 내가 그 글자 안에 있는 얼굴도 모르는 아이에게 위로 받는 느낌이 든다. 글에서는 현실에서 해내지 못 하는 일도 글자로 풀어내면 현실에서 할 수 있는 일도 그 세계에서는 해결 할 수 있다. 그리고 나를 위로 해 주는 것은 만화도 마찬가지이다. 멋진 영웅이 악당을 물리치는 일이나 친구들과 투닥투닥 거리는 일상마저 재밌고 이뻐 보인다. 그저 활자 속 안에 있는 캐릭터와 종이나 티비 안에 있는 그림일뿐이지만 읽고 나면 가슴이 벅차오르고 좋아지는 건, 우리가 그만큼 만화나 글을 통해 많은 위로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나는 노래 듣는 것을 좋아한다. 비가 오면 비와 관련된 노래를 듣고, 또 날씨와 계절에 맞춰 노래를 듣는다. 유튜브에는 당장

플레이리스트만 쳐도 지금의 기분, 나의 상황, 날씨와 노래 취향까지 21세기는 케이팝에 미쳐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는 노래를 듣는 것을 정말 좋아하는데, 신나는 노래 혹은 가사가 이쁜 노래 등을 그 날 기분에 맞춰 듣는다. 내가 신나는 노래를 들을 때면 걷고 있는 발걸음도 같이 신나 하늘 위를 둥둥 떠다닌다.

나는 종종 우울감에 쉽게 빠질 때가 있다. 지금의 나의 상황이나 지금 내가 마주한 상황이 너무 힘들 때 우울이 나오곤 하는데 그런 때가 되면 무조건 신나는 노래를 듣는다. 나의 감정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갈 수 있으니 되도록 최대한 빨리 그 기분을 떨쳐내야 한다. 심지어 나는 포커페이스도 잘 못해서 감정이 쉽게 드러난다. 만약 내가 혼자 집에 있으면 책을 읽거나 좋아하는 동물 사진을 볼텐데, 밖에서는 쉽게 그럴 수가 없다. 그럴 때가 올 때는 귀에 이어폰을 꽂고 최대한 신나는 노래를 듣는다. 그러면 그 힘들었던 감정과 상황이 잠시 잊혀지고는 한다.

노래가 사람들에게 가져다주는 힘은 정말 크다고 생각한다. 또 그 노래가 좋아 그 노래를 부른 가수까지 좋아하는 것을 보면 어쩌면 음악은 우리의 인생 중 정말 큰 부분을 차지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노래는 기분이 안 좋은 사람에게 행복을 갖다 줄 수 있고, 설레는 노래는 설레임과 두근거림을, 계절에 맞게 듣는 노래는 그 노래를 듣는 순간만큼은 내가 그 계절에 있는 것처럼 만들어준다. 조선시대에도 풍류와 여유를 즐겼던 것을 보면 음악은 우리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일 것이다.

사람마다 각자의 위로방식과 방법이 다르듯 정말 많은 위로 방법이나 방식이 있을 것 같다. 사실 위로 받는 물건이나 방법을 나열한다면 정말 밤을 꼬박 새워도 부족하겠지만, 나에게 가장 큰 위로방법은

이렇게 세 개인 것 같다. 하지만 나의 고민을 가족이나 친구에게 나누고 감정을 공유하고 해결한다면 자신에게 정말 도움이 될 것이다. 나만이 가지고 있는 위로방식으로 나를 혼자 위로하는 것보다는 때로는 남이 해 주는 위로가 듣고 싶을 때도 있기 때문이다.

나를 위로 해 주는 물건이나 해 주는 것에 대한 것은 여기서 끝이다. 이번 글쓰기 대회를 통해 나는 평소 생각 해 보지 못 해 본 것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해본 것 같다. 만약 내 글을 읽는 사람이 있다면, 꼭 이 글을 읽고 자신을 위로 하는 것과 또 무슨 방법이 있는지 한 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다. 위로 받는 것은 언제나 바뀔 수 있지만, 그 때 위로 받았을 때의 나의 감정은 쉽게 잊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감정을 또 우리는 이겨내고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힘든 감정을 이겨 낸 나와 또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에게 참 잘했다고 잘 해 왔다고 말 해주고 싶다.